

## ‘닭은 꿀’ 김주형·최대성 사직 맞대결

(KIA) (롯데)

김주형 - 8개월 재활 끝내고 1군 합류

최대성 - 수술 뒤 복귀 158km 광속구

‘닭은 꿀’ 두 선수의 사직 맞대결이 펼쳐질까?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KIA 타이거즈의 거포 김주형이 8개월 간의 재활을 끝내고 18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한다.

김주형은 17일 송도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2군 경기에 출전해 감을 조절한 뒤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이 열리는 부산으로 곧장 이동했다. 김주형은 SK와의 2군 3연전에서 1·3루수와 좌익수로 출전해 12타수 4안타(0.333) 3타점을 기록하며 1군 복귀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다.

김주형이 사직으로 이동하면서 ‘닭은 꿀’ 롯데 최대성과의 맞대결이 관심을 끈다.

85년생 동갑내기 두 선수는 일단 외모가 비슷하다. 최근 야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선수의 외모는 어머니도 인정할 닭은 꿀이다.

동성고 재학시절 부산고와의 경기를 위해 부산을 찾았던 김주형은 최대성의 어머니를

만났다. 부산고 감독이 직접 주선해 이뤄진 만남에서 최대성의 어머니는 김주형을 보고 ‘아들과 똑같다’며 웃었다.

야구 인생도 닮았다.

김주형은 파워로 고교무대를 평정하고 2004년 KIA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초특급 선수였지만 1·2군을 오가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리잡기에 실패한 김주형은 2008시즌이 끝난 후 상무에 입대하면서 2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지난 시즌에는 입단 후 가장 많은 88경기를 뛰었지만 시즌 막바지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며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역시 2004년 프로에 데뷔한 최대성은 2007년 마무리로 나서 158km의 직구를 뿌리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2008년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공익근무를 위해 아쉬움 속에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KIA 김주형



롯데 최대성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활약과 부상으로 마음 고생을 했던 ‘원석’ 두 선수에게 2012시즌은 ‘만년 유망주’의 꼬리표를 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4년 만에 1군 마운드에 복귀한 최대성이 김주형보다 한발 앞서 가고 있다. 최대성은 한화와의 시즌 개막전에서부터 157km의 공을 뿌리며 롯데의 필승 불펜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주형은 지난달 말 팔꿈치 통증이 재발하면서 1군 복귀가 늦어졌지만 파워가 떨어진 KIA 타선에 힘을 실어줄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암흑의 시간을 보낸 ‘닭은 꿀’ 두 선수가 사직 그라운드에서 재결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채널A 후원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19~20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려

채널A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Korea Speed Festival·KSF) 개막전이 19~20일 영암 F1경주장(KIC)에서 열린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대회인 KSF에는 제네시스쿠페, 포르테쿠브아반떼, 슈퍼 6000, Ecsta GT, N 9000 등 6개 종목(클래스)에 100여대의 차량이 참가해 짜릿한 스피드의 진수를 선사한다.

개막전에는 류시원, 김진표, 이화선, 알렉스, 한민관 등 국내 연예인 레이서들이 총출동해 별들의 스피드 경연을 펼친다. 알렉스는 지난 4월 말 ‘DDGT’ ST300클래스에서

생애 첫 출전해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이번 통합전에도 우승에 도전한다.

또 대회 사상 최대 기록인 총 7명의 여성 레이서가 참가하며, 총상금도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사상 최고인 3억원으로 책정됐다.

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승자를 맞추는 ‘베스트랩 토로이벤트’를 통해 당첨자 1000명에게 우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준다. 드리프트 시연, 레이싱 카트 주행 등 다양한 이벤트와 불스원샷, 안전우산, 차량용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농구공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또 최근 개교 프로그램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용감한 녀석들’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즐거봐 KSF’ 공연과 팬 사인회를 연다. 개막전 등 대회는 MBC와 채널A를 통해 중계된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주 8G 무승 탈출할까

내일 광주서 서울과 13R



광주 FC가 19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 서울과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1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최근 8경기 무승이라는 침체에 빠진 광주에게는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12라운드 수원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북이 얻은 페널티킥으로 1-0으로 앞섰지만 후반 4실점하며 무너졌다. 이하람의 갑작스런 근육부상과 함께 전술의 핵심 이승기, 주앙파울로가 각각 부상과 경고누적으로 결장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졌다.

하지만 ‘복덩이’ 북이의 활약으로 올 시즌 수원의 두 번째 홈 실점을 이끄는 등 광주는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비버드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광주 캡틴 김은선은 “시련은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의 특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며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축구팬과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서울은 광주에게 값진 보양식이었다. 당시 8경기 무승의 늪에 빠져 있던 광주는 ‘디펜딩 챔피언’ 서울을 1-0으로 꺾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서울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주앙파울로는 “서울은 경기가 풀리지 않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

런 서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골을 넣었다”며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 만큼 다시한번 승리의 기쁨을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그라운드에서 오르지 못했던 이승기·주앙파울로가 체력과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리고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기는 4도움, 주앙파울로는 4골3도움을 기록하며 광주 공격의 중심에 서었다.

이승기와 박기동의 플레이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승기는 지난 시즌 박기동과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7득점을 만들어냈다. 박기동의 부상 복귀가 반가운 이승기다.

광주가 올 시즌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을 상대로 5월 천기를 부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형 걸개 걸고 목냄·추모

광주 FC가 5·18 민주화운동 32주년을 맞아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5월 정성을 기린다.

광주는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13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오월의 눈빛, 오월의 신념, 모두의 가슴마다 꽃으로...’라는 검은색 대형 걸개를 건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도 도열해 5초간 목냄을 하고, 광주·서울 서포터즈들도 경기 시작 후 5분간 응원을 하지 않고 5월 광주영령들을 추모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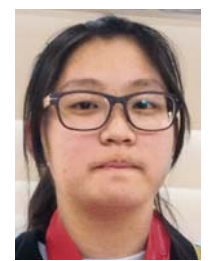
‘탱크샷’ 17일 제주도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SK 텔레콤 오픈 2012’ 1라운드 15번홀에서 최경주가 티샷을 날리고 있다. 최경주는 1오버파 40위로 부진했다. /연합뉴스

## 첨단고 볼링 전국 첫 전종목 금 ‘씩씩이’

9개 대회 연속 종합우승

김한웅·박준민 4관왕

곡성중 김예솔도 금 4



곡성중 김예솔

광주 첨단고가 제31회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전국 최초 전종목 금메달 석권과 함께 9개 대회 연속 종합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17일 광양 메카 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5인전에서 첨단고 김성환·정동익·김경범·김한웅·박준민·이강민이 6232점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한웅과 함께 2인조 우승을 이뤘던 박준민은 마스터스(2317점)와 개인종합(5128점) 우승까지 차지하며 4관왕이 됐다. 김한웅도 개인전·2인조·3인조·5인조 우승으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첨단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전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첫 기록을 세웠다.

또 2011시즌 7개 대회를 ‘씩씩이’ 했던 첨단

고는 지난날 광주에서 열린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전국 최고의 전력을 과시했다.

곡성중도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중등부 강자임을 재확인했다.

곡성중 김예솔은 여자부 개인전·2인조·4인조·개인종합 우승으로 4관왕을 기록했다. 장미나·한진아·이예은은 김예솔과 함께 선전하며 전국소년체전 전망을 밝게 했다. 또 남자부에 출전한 오명섭은 개인전과 개인종합 우승으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다.곡성중 볼링팀은 지난 3월 전국소년체전 전라남도 대표 선발전 전종목 석권에 이어 4월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여자부 개인전 1·2·3위를 ‘씩씩이’ 하는 등 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